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조랑말

1주차	일시	11월 14일 15 : 00 상상파크 C&C 멀티 스튜디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한빈(2271432)	O		
		정민지(2371262)	O		
		이석우(1971377)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서론 ~ 3장			
					
	<p>[좌측부터 조세홍 교수님, 정민지, 박한빈, 이석우]</p>				
	토론 내용	<p><b>능력주의의 윤리적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조세홍 교수님:</b>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가 굴욕감을 느끼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이 책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주목해보라"며 발제 및 가이드라인 제시.</li> <li><b>박한빈:</b>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낙인을 찍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언급.</li> <li><b>이석우:</b> 한국 사회의 입시 경쟁과 연결 지어, 우리가 믿었던 공정이 사실은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수 있음을 지적.</li> <li><b>정민지:</b>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사회적 연대감이 약해진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며, 주변의 사례를 들어 설명.</li> </ul> <p>マイ클 샌델이 제기하는 '능력주의의 폭정'에 대한 정의를 공유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공=능력'이라는 등식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결함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함. 특히 '운'의 요소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함.</p>			

	일시	11월 21일 15 : 00 상상파크 C&C 멀티 스튜디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한빈(2271432)	O	
	정민지(2371262)	O	
	이석우(1971377)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4장 ~ 5장	
2주차	 <p>[좌측부터 이석우, 박한빈, 정민지]</p>		
토론 내용	<p>학력주의와 선별 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이석우:</b> 책에서 언급된 '제비뽑기 입시 제도' 제안에 대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철학적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의견 제시.</li> <li><b>정민지:</b> 대학 졸업장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비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li> <li><b>박한빈:</b> SAT나 수능 같은 시험 점수가 학생의 잠재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부모의 재력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언급하며 토론.</li> </ul> <p>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계급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함. 특히 '학력주의'가 낳은 오만과 편견이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고, 공정한 입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열띤 토론을 벌임.</p>		

	일시	11월 28일 15 : 00 상상파크 C&C 멀티 스튜디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한빈(2271432)	O	
	정민지(2371262)	O	
	이석우(1971377)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6장 ~ 7장	
3주차	 <p>[좌측부터 박한빈, 정민지, 이석우]</p>		
토론 내용	<p>일의 존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정민지</b>: 금융업처럼 돈을 버는 일과 사회에 기여하는 일(돌봄, 필수 노동 등)의 가치가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지적.</li> <li><b>박한빈</b>: '기여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받는 보상이 사회적 기여도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li> <li><b>이석우</b>: 기술 발전과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재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li> </ul> <p>시장 중심적 가치관이 어떻게 '일의 존엄'을 훼손했는지 논의함. 특히 생산자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인정과 결속을 다지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우리가 미래에 가질 직업관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p>		

	일시	12월 5일 15 : 00 상상파크 C&C 멀티 스튜디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한빈(2271432)	O	
	정민지(2371262)	O	
	이석우(1971377)	O	
진도	도서명: 공정하다는 착각	진도페이지: 결론 및 총평	
4주차	 <p>[좌측부터 박한빈, 조세홍 교수님, 정민지, 이석우]</p>		
토론 내용	<p>능력주의를 넘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조세홍 교수님:</b> 4주간의 토론을 갈무리하며, "완벽한 평등은 불가능하더라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 연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총평.</li> <li><b>박한빈:</b> 성공을 개인의 노력 덕분으로만 돌리는 오만을 버리고, 운에 대한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공정 사회의 첫걸음임을 깨달았다고 소감 발표.</li> <li><b>이석우:</b> 책을 읽기 전에는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패자를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언급.</li> <li><b>정민지:</b> 능력주의의 대안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선 '조건의 평등'과 '민주적 시민성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li> </ul> <p>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공동선'의 회복에 대해 논의함. 단순히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겸손과 연대의 자세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다짐을 나누며 독서클럽 활동을 마무리함.</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박한빈 (2271432)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으며 입시 경쟁과 능력주의의 허상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재력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받는 보상이 사회적 기여도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여적 정의'에 대한 토론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 학우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성공이 오로지 나만의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2	정민지 (2371262)	책을 선정할 때 여러 의견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책의 제목이 한번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목이어서 선정했습니다. 읽으면서 평소에 생각해봤던 점인 것도 있었고 모르게 그저 스쳐지나갔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3	이석우 (1971377)	평소 인터넷 매체에 너무 빠져 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다시금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흥미를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독서를 이어 갈 생각이며, 인터넷 매체에 심하게 의존돼있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4		
	5		